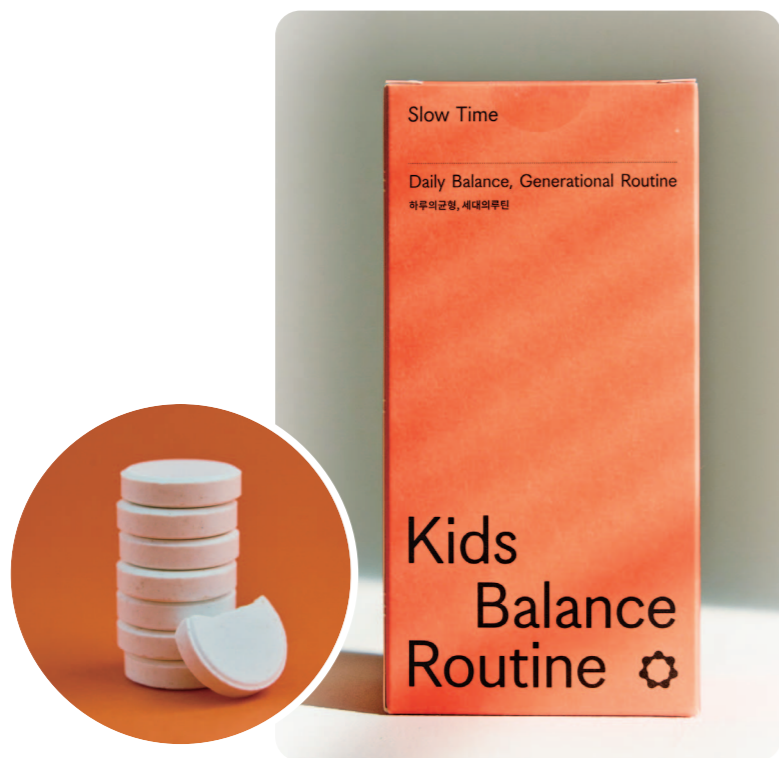


START UP 신윤미 슬로우타임(주) 대표

자투리 식재료의 재탄생...기능성 바이오소재로 변신



'슬로우타임 글루밸런스'



슬로우타임(주)은 독자적 추출 공정으로 장어 핵심 영양 성분을 고농축화했으며 카르노신·타우린·DHA (다가불포화지방산)·EPA (필수 불포화지방산)·고단백 복합영양소 등 성장기 아이를 위한 프리미엄 영양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장어 머리·뼈 등서 기능성 성분 담은 독자 원료 추출 공인기관 과학적 분석 경험 데이터화...고객과 신뢰 ↑ “해외시장 진출, 해양단백질 원료화 기술 특허 꿈꿔”

장어가 열량이 높은 음식임에도 부담 없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에너지 전환 방식에 있다.
장어 속 불포화지방산이 신진대사를 돕고, 섭취한 열량이 지방으로 쌓이기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쓰이도록 만든다.
여기에 철분과 인이 산소 운반과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면서 단순히 ‘힘이 난다’는 수준을 넘어 전신의 회복 과정이 빨라지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
특히 장어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와 E, 철분, 인, 불포화지방산까지 총 6종이 들어 있어 여러 기능을 동시에 보

완하는 대표 스테미너 식재료로 꼽힌다.
장어가 회복 음식으로 인정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EPA·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이 성분들은 혈관 건강과 두뇌 활동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병원에서든 기력이 떨어진 환자께 장어를 권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장어 머리 등 부속물들은 전문 업체에 돈을 주고 폐기되고 있다.
슬로우타임(주) 대표 신윤미)은 돈을 주고 버려야 했던 부속물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 중인 푸드테크 기업이다.



신윤미 대표

신 대표는 “슬로우타임은 장어 머리과 뼈의 특별한 영양을 가지 있게 바라보고 이를 표준 원료화하며 자원의 가치를 찾고 기능성 바이오 소재로 재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여년간 장어 전문점을 운영했던 신

대표는 장어 부속물에도 영양분이 그대로 남아 있을 텐데 아깝다는 생각이 지난 2024년 업계에 첫 발을 디뎠다.
다년간 현장에서 축적한 식재료에 대한 이해와 전처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식품연구원(KRFRI)·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등 공인기관의 과학적 분석으로 경험을 데이터화했다.
주목 받지 못했던 핵심 영양이 집중된 부위를 과학적으로 추출·표준화해 성장기 아이를 위한 프리미엄 웰니스 원료로 완성했다.
‘슬로우타임 글루밸런스’는 장어 머리과 뼈의 핵심 영양에서 추출한 카르노신·타우린·DHA 등 기능성 성분을 담은 독자 원료로 구성됐다.
화학적 부형제 없이 정제수 100%로 추출하며, 수년간 쌓아온 전처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단순 건조분말과는 차원이 다른 추출 기반 원료를 자체 표준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추출 공정으로 장어 핵심 영양 성분을 고농축화했으며 카르노신·타우린·DHA (다가불포화지방산)·EPA (필수 불포화지방산)·고단백 복합영양소 등 성장기 아이를 위한 프리미엄 영양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KRFRI·자인식품연구원 등의 공인기관의 성분 검사 등 과학적 분석으로 성장기에 필요한 복합영양소가 집중되었음을 확인하고, 안전성에서는 중금속(납·카드뮴·비소) 기준치 이하, 대장균 군 0, 이물 불검출로 다기관 공인 검사를 완료하는 등 제품 컨셉의 기준을 유지하며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슬로우타임이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영양 자원을 과학적으로 정립해 지속가능한 원료 생산 모델로 전환하는 ESG 가치도 함께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신 대표는 화학적 부형제 0, 정제수 100% 공정으로 불필요한 첨가물을 배제한 정제 원료를 바탕으로 식품·펫 위

료 등 다양한 카테고리 개발을 고민하고 있다.
또 중국·일본 등 해외 시장 진출, 해양 단백질 원료화 기술 특허 출원을 더해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로 성장을 꿈꾸고 있다.
신윤미 슬로우타임 대표는 “슬로우타임은 장어 핵심 영양을 추출·표준화해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한다. 10년 현장경험에서 출품한 진정성과 다기관 공인 검사로 뒷받침된 안전성이 강점이다. 그 원료로 직접 만든 첫 번째 제품이 골드키즈를 위한 글루밸런스”며 “전남지역 장어 식문화를 현대 웰니스 언어로 재해석한 지역 기반 푸드테크 스타트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슬로우타임은 지역의 식문화와 경험을 현대 웰니스로 번역하고 원료의 신뢰에서 시작해 글루밸런스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고 강조했다.
윤성기 기자 y01404@gwangnam.co.kr



신윤미 슬로우타임 대표가 지난해 호남권역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의 '제26기 CEO 명품아카데미'에 교육장으로 참여했다.



신윤미 슬로우타임 대표가 유망아이템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 청년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국내 대표 청년취업 사업인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신윤미 슬로우타임 대표가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한 '제1회 중소기업 HRD 미래전략 포럼'에 참석했다.

“40년의 진화”...현대차, ‘더 뉴 그랜저’ 출시



최근 진행된 ‘더 뉴 그랜저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현대차 MLV프로젝트2실장 한동혁 상무, 현대차 인포테인먼트소프트웨어개발실장 박영우 상무, 현대차 현대내장디자인실장 송현 상무,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윤효준 전무가 더 뉴 그랜저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현대자동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급 세단, ‘더 뉴 그랜저’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랜저는 1986년 7월,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지난 40여 년간 시대를 앞서가는 독보적인 디자인과 당대 최신 기술을 가장 먼저 소개하며 대한민국 고급 세단의 역사를 관통해온 현대차의 상징적 플래그십 모델이다.
그랜저는 7세대에 걸친 긴 여정 동안 매 순간 한 차원 진보한 이동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더 뉴 그랜저는

최신 기술 집약 플래그십 세단...SDV 시대 본격 제시 세단 최초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출력·연비 향상

그동안 그랜저가 쌓아온 견고한 헤리티지 위에 현대차 최초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집약했다.
현대차는 더 뉴 그랜저에 자사 최초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한다.
더 뉴 그랜저 실내 중심에는 17인치 중앙 디스플레이가 자리해 시원한 개방감과 함께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한다.

탑승객은 고해상도 대화면에서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한눈에 파악하고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주행 중에도 화면 분할을 통해 여러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과 몰입감이 더욱 높아졌다.
더 뉴 그랜저에 탑재된 ‘플레오스 커넥트’는 대형 언어 모델(LLM) 기반의 차세대 생성형 AI 에이전트인 ‘글레오 AI(Gleo AI)’를 통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맞춤형 운전자 경험을 선사한다.
현대차는 더 뉴 그랜저에 처음으로 ‘전동식 에어컨’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 최초로 더 뉴 그랜저에 탑재된 ‘스마트 비전 루프’는 기계식 블라인드 없이 고분자 분산형 액정 필름을 적용해 루프의 투명도를 6개의 영역으로 나눠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더 뉴 그랜저는 내연기관 최초로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PMSA)’가 적용돼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오인해 급격히 밟는 상황을 감지해서 구동력을 제한하고 제동을 수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세단 최초로 현대차그룹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시스템 최고 출력과 복합 연비를 동시에 향상시키며 고성능과 고효율을 모두 구현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